

제목 : 너는 환자만 바라봐, 나머지 AI가 해줄게

1. 서론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들, AI를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적이 있다면 어디서 보았나요? 조금 더 생각해봅시다. 우선 AI란 인간의 학습능력과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어의 이해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을 얘기합니다. 인간에게는 육체적 능력과 인지적 능력이 존재하고 인간에게만 있는 인지적 능력이 필요한 새로운 서비스직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AI는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인지적 능력에서도 점점 인간들을 추월하고 있으며 인간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연결성과 업데이트 기능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지 감이 오십니까? 인간에게 일자리는 생을 유지시키기 위한 꼭 필요한 수단인데 이것을 빼앗겨버리면 인간은 어떻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의 직업들이 있지만 저의 전공인 응급구조사를 중점에 두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응급구조사 또한 AI에게 일자리를 빼앗기게 될까요? 저는 이 문제를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일자리를 두고 경쟁을 하기보단 같이 공존한다면 어떨까, 조금 더 효율적이고 신속하며 정확하게 지금보다 더 많은 환자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실제로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인공지능 급급차와 AI 기반 119 신고 접수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AI가 응급구조사를 왜 대체할 수 없는지와 공존해야하는 이유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2. 본론

2.1 기술발전의 한계성이 있다.

AI는 아직 응급구조사의 일자리를 뺏을 만큼 단독으로 환자를 치료하기에 기술발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만약 인공지능 혼자 환자를 완벽하게 치료 가능하다면 응급구조사보다 의사가 먼저 사라질 것입니다. AI는 그저 응급구조사를 서포터하는 수준밖에 할 수 없으며 실제로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AI 기반 119 신고접수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119 신고전화 통화 내용을 AI로 분석해 상황실 ‘근무자’가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었고 119 신고 접수는 긴박한 현장 특성상 통화에 잡음이 많고 긴장한 신고자와 대화가 이뤄져 신고내용과 재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접수자의 초동조치능력에 따라 재난의 피해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신고자 음성을 AI가 자동으로 인식해 재난위치, 신고의도 등 핵심키워드를 추출하고 상황실 ‘근무자’가 눈으로 보며 빠르고 정확하게 신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AI는 응급구조사가 조금 더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만 할 수 있을 뿐이며 이것이 AI 기술의 한계성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흔히 말하는 ‘버그’ 즉 오류를 빠트릴 수 없다. 응급구조사는 긴박한 환자를 상대하며 단 한 개의 실수 없이 병원까지 최대한의 치료를 해야 한다. 만약 AI의 오류로 인해 잘못된 치료를 한다면 그건 누구의 책임을 묻 것인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오류를 발생하게 한 병원과 소방의 책임을 묻 것인가? 그렇다면 매일 업데이트하며 최고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자본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2.2 응급상황의 특별함을 배제할 수 없다.

응급상황이란 매우 위급하거나 긴급한 상황을 얘기합니다. 신고를 받고 AI가 출동을 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현장에 도착하는 것부터 환자를 찾는 것까지 그 누구보다 빠르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환자를 구급차까지 이송시키는 것과 구급차 안에서 알맞은 처치를 한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환자마다 느끼는 통증의 정도와 부상으로 인해 소통이 안 될 경우를 생각해야 합니다. 같은 사고로 인해 발생한 부상이 AI에게 입력된 통증의 정도와 증상의 종류가 환자가 느끼며 얘기하는 것과 달라져버리면 자칫 잘못된 처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어떤 사람은 통증을 느끼면 감정이 격해질 수도 있으며 폭력적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출동을 했지만 AI에게 폭력을 가해 고장이 나버리면 다음 출동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의료비용 걱정으로 인해 구급차에 타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119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여도 응급처치도 못하며 다음 출동신고에도 피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응급상황과 환자마다의 생각해야 할 변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3. 반론/재반론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며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응급구조사 만큼의 실력과 안전성을 가진 인공지능이 나올 것이며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처럼 점점 영역을 넓혀 나가 의료분야에서도 인간보다 AI의 영향이 더 크게 될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은 인간에게는 없는 연결성과 업데이트 기능을 가지고 있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일처리가 가능하고 인간이 알 수 없는 교통체증 상황과 병원의 상황을 알 수 있어 환자 상태에 적합한 병원을 찾기 훨씬 수월할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떠한 환경에 처해있는지도 모르는 환자를 AI로만 이송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롯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따로 있는 법이다.

이 뿐만 아니라 인간은 감정이란 것을 가지고 있어 환자의 태도에 따라 격해질 수도 있다. 또한 패닉상태나 머뭇거리다가 처치를 망설여 제때 치료를 하지 못할 수도 있고 AI는 이성적인 판단만 가능하여 인간보다 더 정확하고 확실한 처치법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사실 AI가 인간보다 더욱 이성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환자가 처치에 대해 수용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인다면 AI는 할 수 있는게 무엇일까라는 의문점이 든다. 응급구조사는 환자를 설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AI는 가지고 있지 않다.

4. 결론

이제까지 AI가 응급구조사를 대체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AI는 인간보다 나은 점이 수두룩하게 많다. 하지만 지금 다루고 있는 분야에선 AI가 절대적으로 힘쓸 수 있는 부분이 없다. **AI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져와 인간과 결합해본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환자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도입된 '인공지능 구급차'를 보면 알 것이다. 병원측과 직접 연락하지 않아도 AI에게 음성인식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얘기하면 환자 중증도 판단, 이송병원 추천, 의료센터 실시간 정보 제공을 해줄 뿐만 아니라 최적의 차량경로까지 안내해준다. 또한 구급차 내 환자 정보를 응급의료 센터에 실시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될 경우 AI는 AI만의 역할을 제대로 해줄뿐더러 **응급구조사가 환자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준다.** AI가 발전함에 따라 더 많은 환자를 살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AI는 응급구조사와 경쟁상대가 아닌 힘을 합쳐야 할 존재이다.**

을주행 장점과 로봇 알티노 라이트”, 와이즈교육 공식블로그, 2021년 10월 6일 수정, 2021년 11월 24일 접속, <https://blog.naver.com/thewiseclub1/222527585150>

알파맨, “인공지능 스피커의 진화는 계속된다 - AI 스피커 특징, 장점”, RPA를 쓰는 사람들 알파맨 블로그, 2020년 11월 10일 수정, 2021년 11월 24일 접속, <https://blog.naver.com/rparo/222140115850>

유형동 기자, “AI로 골든타임 지킨다...광주소방, AI로 확 달라진다“ AI타임스 기사, 2021년 9월 10일 수정, 2021년 11월 24일 접속, <http://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0588>